

제주도 잠수곳의 의례형태와 의미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 * 강 소 전

1. 서론
2. 잠수곳의 제차(祭次)와 그 역할
3. 잠수의 의례형태와 잠수곳의 의미
4. 결론

1. 서론

제주에서 바다를 이용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생활풍속이나 생업기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잠수¹⁾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는 제주도의 여성들 중에서도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예로부터 독특한 면모를 보여 왔으며, 그들이 만들어내고 전승시켜온 수많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들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잠수들의 문화 가운데 잠수굿은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잠수굿은 잠수들의 무사고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의례이다. 그리고 잠수굿을 통해 잠수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나타난다. 평생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물질작업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정신적인 의지처로서 잠수굿은 반복되는 통과의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현재 잠수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지만²⁾,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인 「제주도 잠수굿 연구: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잠수굿의 제차와 역할 그리고 잠수의 의례형태와 잠수굿의 의미를 다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요약하고 논증을 더한 것이다.

1) 제주바다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나잠어업을 행하던 이들은 그간 '잠녀(죤녀, 줌네), 잠수(죤수), 해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다. 해녀나 잠수 등의 호칭에 관한 논의는 강대원(『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김영돈(『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등의 글에 논의된 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기왕에 쓰인 해녀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지는 의견도 있었으나, 반면에 해녀가 일제시대에 식민지정책과 관련된 호칭이니 원래의 명칭인 잠녀나 잠수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해녀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제주에서 원래적으로 쓰였던 잠녀와 잠수 중에서 잠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잠수들 중 노년층은 해녀라는 말보다 잠녀와 잠수라는 표현을 본래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김녕의 잠수들도 스스로를 보통 잠녀·잠수로, 자신들의 곳을 흔히 잠녀굿·잠수굿으로 부르기에 본고에서도 그들의 고유한 풍속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다. 다만 본고에서 잠녀와 잠수 중에 굳이 잠수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본래적인 용어를 존중하는 의미와 동시에 어촌계 내의 조직인 잠수회라는 용어와도 서로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기 위해 잠수라는 표현으로 단일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2) 잠수에 대한 연구조사 영역은 매우 넓은 편이다. 김영돈은 잠수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의 연구성과인 『한국의 해녀』(민속원, 1999)를 살펴보면 잠수와 관련한 연구영역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즉 해녀기술, 해녀복과 도구, 해녀와 관련한 민속(입어관행과 夢兆, 민간신앙, 설화, 해녀노래, 속담, 직업어), 해녀바다, 바깥물질 공동체

이에 비해 잠수굿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존에 잠수들의 무속의례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영등굿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그동안 영등굿과 잠수굿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잠수의 의례형태와 잠수굿의 의미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간 글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등굿의 제차(祭次)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부가적으로 잠수굿도 거의 동일한 의미와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런 결과 영등굿과 잠수굿의 변별성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잠수굿은 영등굿의 변형이거나 아류 정도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제차를 분석하는 것도 1차적으로 그 순서와 의미를 밝히는 데에 머물렀을 뿐, 아직까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잠수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깊은 연관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제차의 구성과 그 역할을 살펴보는 일은 잠수굿 연구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며, 그동안 단순한 제차의 나열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잠수굿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초기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제주도 잠수굿의 제차의 구체적인 역할과 더불어 잠수의 의례형태와 잠수굿 자체의 의미를 밝혀 나름대로 잠수굿의 정확한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제주도 모든 지역의 잠수굿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지역적 범위를 좁혀 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잠수굿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한 지역을 택한다 해도 전체적인 잠수굿 연구에는 큰 지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의 동김녕마을이다. 김녕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22km, 구좌읍사무소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이다. 김녕리는 동성동, 신산동, 청수동, 봉지동, 용두동, 대충동, 한수동, 남흘동의 모두 8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의식, 권익과 수탈, 지역적 고찰, 항일투쟁 등이다. 이러한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그간 잠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네 마을은 기존의 동김녕 지역이고, 뒤의 네 마을이 서김녕 지역이다.

동김녕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잠수들이 많고 물질활동이 활발하기로 제주도내에서도 소문난 지역이었다. 현재도 동김녕 마을에만 잠수 104명이 물질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매해마다 음력 3월 8 일에 잠수회가 중심이 되어 잠수굿이 큰 규모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굿을 대하는 진지함은 사뭇 대단하다. 또한 동김녕마을에는 그 마을의 무속의례를 전담하는 매인심방³⁾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직접 굿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잠수라는 단골조직과 매인심방의 존재, 굿의 연례적인 반복과 지속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점이 제주도의 잠수굿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동김녕의 잠수굿을 주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김녕 마을의 잠수굿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하며, 특히 주로 2003년에 행해진 잠수굿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편 동김녕마을 이외에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와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의 잠수굿 등 다른 몇몇 마을의 사례도 보조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잠수굿의 제차(祭次)와 그 역할

제주도에 언제부터 잠수들이 생겨났고, 또 이들에 의한 물질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잠녀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들의 생활상이나 중앙 조정에 진상하는 해산물로 인한 폐해 등이 있었다는 기록⁴⁾을

3) 현재 김녕에서 활동하는 매인심방은 2명으로, 그 중 잠수굿을 맡는 심방은 문순실(54세)이다. 문순실 심방은 가족내력으로 인해 최근 성(姓)이 서(徐) 씨로 바뀌었으나, 그동안 문심방으로 불렸던 사정 등을 감안해 본고에서는 문순실 심방이라고 그대로 호칭하고자 한다.

4) 이견(李健)의 『濟州風土記』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濟州道 教育委員會, 『耽羅文獻集』, 신일인쇄사, 1976, 198쪽.

살펴본다면 그 연원이 비교적 오래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⁵⁾ 잠수굿은 이렇게 잠수들의 존재와 함께 이루어지고 꾸준히 전승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각종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주에는 무속이 성행하였으며 섬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신에게 빌어 기원하고자 했다는 사실들은 당시에 굿이 일반적인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당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⁶⁾

그러므로 한 사람의 잠수이기 이전에 한 마을과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이미 당이나 굿을 통한 무속신앙 행위는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거기다가 물질을 하는 잠수였다면 분명히 물질작업과 관련한 신앙행위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잠수굿을 개인적으로 하든 집단행위로 하든 오랜 시간 동안 전승되어 내려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주도 잠수굿의 제차구성과 그 역할을 살펴보자.

제주도 잠수굿의 일반적인 제차는 동김녕마을의 잠수굿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김녕 잠수굿은 하루 종일에 걸쳐 치러진다. 새벽부터 제물을 진설하고 큰대를 세우고 삼석울림부터 시작해서 굿의 마지막인 도진을 하면 저녁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잠수굿의 제차는 굿의 내용상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초감제, 요왕맞이, 지드림, 씨드림-씨점, 액막이, 배방선 등이다. 그런데 이들 중심적인 제차들은 그 내부에 다양한 제차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선후로 이어지는 제차들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동김녕 잠수굿의 기본제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
- 5) 잠수의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 19 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참고
- 6) 김정(金淨)의 『濟州風土錄』, 김상헌(金尙憲)의 『南槎錄』, 이견(李健)의 『濟州風土記』, 이원진(李元鎭)의 『耽羅志』 등에서 당시 제주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다.
- 7) 제차 분석은 지난 2003년에 벌어진 굿을 대상으로 한다. 동김녕의 잠수굿은 매년 진행이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각 해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현용준은 동김녕 잠수굿의 제차를 크게 초감제-요왕맞이-요왕세경본풀이-요왕채 스본풀이-씨점·씨드림-즈손들 산받음-배방송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현용준, 「濟州의 漁民信仰」,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165~167쪽. 이 논문은 『濟州道 水協史 제주시수 산업협동조합』, 1986)에 실린 것을 재수록한 것임). 기본적으로 당시의 잠수굿이나 현재의 잠수굿은 거의 동일한 제차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용준의 보고와 비교해보면 일부

[삼석올림

[초감제] : 배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닭음-제청신도업-군문열림-분부사림-새드림-젯드리 얹혀 살려움

[추물공연

[요왕세경본풀이]

[요왕맞이] : <초감제> : 배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닭음-제청신도업-선왕의 이야기(도깨비영감)-군문열림(군문돌아봄)-분부사림-새드림-도래둘러땀(상촉권상-도래둘러땀-젯북제맞이곳)-오리정신청계-서우젯소리-분향뒀(소지사름 포함)-오리정 정테우 마무리
<요왕질침>

[지드림

[씨드림-씨점]

[서우젯소리]

[액막이] : <요왕차사본풀이>, <각산받음> 포함

[선왕풀이-배방선]

[도진]

위에 밝힌 동김녕 잠수굿의 제차진행을 중심으로 잠수굿의 제차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잠수들은 특히 어떤 제차들을 중요시하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제차들은 어떤 제차들인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 제차들을 중심으로 잠수굿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 과정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그 역할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잠수들의 해상무사고 기원, 해산물의 풍요 기원, 잠수공동체의 유대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제차의 순서가 현재와는 조금 다른 면이 발견되기도 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나 굿진행에 따른 시간의 적절한 안배, 수심방과 소미(小巫) 사이의 교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해당 상황에 따라 제차의 일부 순서에서 다소 선후가 바뀌어 행해질 수 있다. 한편 동김녕 잠수굿의 매킨심방인 문순실은 1980년대 초 자신이 굿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본고에서 밝힌 제차구성을 그대로 현재까지 변화 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 해상무사고 기원

(1) 열명(列名)

열명은 예명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즉 누가 굿을 하는 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굿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제차이기도 하다. 잠수굿에서도 굿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열명을 해서 굿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부른다. 굿당의 천정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를 쪽 써 놓은 종이를 걸어놓는다. 동김녕은 잠수들도 많고 각 기관·단체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불러야 할 이름이 많은 편이다. 종이에선 어촌계 임원명단, 각 마을의 잠수명단, 선주명단, 각 기관이나 단체명단, 일반 참가자 등이 순서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열명을 하는 이유는 축원을 올리는 대상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유와 더불어, 결국 잠수굿에서 기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첨가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목적이 물질작업 중에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열명이라는 절차는 당연히 해상무사고 기원의 필수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 열명은 굿의 서두 부분에서만 아니라 굿을 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불러진다. 이름을 일일이 불러줌으로써 그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신에게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2) 새드림

새드림은 초감제 중의 한 제차로 소미가 나와서 물그릇과 감상기를 들고서 신이 내려오는 길의 모든 부정을 없애 치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초감제의 새드림이나 요왕맞이 초감제의 새드림을 하는 과정에서 소미가 여러 잠수들을 제장의 한 가운데로 불러내어 앉혀 놓고 그들을 상대로 부정[邪]을 멀리 쫓아내는 모습을 시연한다. 본주(단팔)들의 몸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없애고 깨끗한 몸으로 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부정을 없애는 의미가 확장되어 본주의 무사고를 바

라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새[邪]는 기원자에게도 달라붙어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새를 멀리 쫓아내는 행위는 곧 무사고를 기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때 소미가 신칼로 개개 잠수들의 몸을 쓰다듬어 주는데, '신칼치마가 한번만 닿아도 소망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한다.

(3)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초감제와 더불어 잠수국의 한 축을 형성한다. 말 그대로 용왕을 맞아들여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양쪽에 일반적으로 8개씩 꽃아 놓은 뗏가지는 요왕질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 길이 요왕이 오고 가는 길이며 그 자체가 요왕문이 되는 것이다. 물질 작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 그야말로 요왕문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기원한다.

나 즈순들아 착허다 나 즈순들아 고마웁다(다 막아줍서). 목 므른 사람이 물을 좇으고(아이고 다 막아줍서) 목 므른 사람이 샘을 좇는 법이로구나(아이고 다 막아줍서). 정성 그득허다 시군문을 저승만 이싱만 조상들이 내리켄 허난 처서님이 앞을 사난 조상님네 가문공스로 고양 놀려준다 해염수다(고맙수다. 다 막아줍서). 조상님아 고맙수다. 인정을 싣끈 배가 파하는 일 없고 공 들영 놓아 두민 공든 탑 무너지는 법이 없습네다. 작년에 굶인 운을 곱게 넘겨주난 고맙수다. 원 다섯 술(삼수회장을 말함: 조사자 주) 혼 들에 혼 번씩만 백명이 넘는 지를 혼 번 드리치민 열두 번을 드리치명 간장 썩으명 술 썩으명 구신 테우리 생인 테우리 영 허영 오늘 ㄷ지 이 굶 허는덜랑 백명이 넘는 해녀들 편안시켜줍서(아이고 다 막아줍서). 바당에 돈 벌영 살젠 물질 안 허는 즈순들은 편안허게 살주만은 이디 예명올린 즈순들은 배운 기술은 바당물질 배우난 정일월은 칼날같은 비름쌀이로구나. 이삼사월은 진진현 해 오 뉴월은 한 더위 오동짓들은 서단풍에 요즘이사 이거 고무옷도 입고 허난 허주만은 이 옷 입어도 여름은 나민 더운 집이 무각무각 겨울은 나민 머리 실렵고 손 실렵고 발 실렵고 이 돈 벌어당 얼마나 살명 이 물질해영 백년이나 돌아오명 샅네까. 배운

기술이 이 기술이난 하루 강 물질허민 돈 만원이라도 벌어지난 이 바당을 영업삼으
꼭 해영 땡점수다. 요왕님에서 죽을 목숨을 살려줍서(2003년 동김녕 잠수굿, 요왕맞
이의 군문열림 중에서, 문순실 심방)

(4) 지드림

요왕맞이가 끝나면 제상에 있던 제물을 조금씩 뜯어 모아 흰 한지에 지를
싼다. 지는 용왕신과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제물을 대접하는 의미를 가지
고 있다. 그런데 지는 잠수회 전체를 위한 ‘도지’와 각자의 ‘개인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를 드릴 때는 심방이 대양을 들고 같이 가서 간단하게 축원의 말
을 해 준다. 도지는 전체를 위한 것으로 아무나 싸는 것이 아니라 잠수대표들
이 싸서 던진다. 그 외에 각각의 개인은 알아서 조그맣게 지를 싸서 바다에 가
서 던진다.

지는 잠수들이라면 평소에도 하는 기원행위의 일종이다. 그 해 첫 물에 들
때나 조금 때마다 수시로 개인들이 알아서 바다에 지를 드리기도 한다. 사람
에 따라서 지의 갯수가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왕지 와 뽕지’
는 공통사항이고 가족 중에 물질하다가 수중고혼이 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몫의 지도 싸서 던진다.

(5) 요왕차사본풀이

차사본풀이는 죽은 이를 위로하고 저승의 좋은 곳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무
혼의례(撫魂儀禮)에서 불려지는 본풀이를 말한다. 그런데 잠수굿에서는 기원
자들이 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요왕차사본풀이를 하게 된다. 요왕차사
본풀이를 부르는 이유는 이미 죽은 이들은 저승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해 달
라는 뜻과 함께, 바다에서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잠수들의 물질이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행해지고 잠깐 방심하거나 조금이
라도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요왕차사본풀이를 통해서 무사고를 기원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 액막음과 각산받음

액막음은 굿은 액을 막는 것이다. 또 산받음이란 신의 뜻을 짐쳐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것으로 각각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산을 받는 것을 각산받음이라고 한다. 동김녕에서는 굿 전반부에 심방이 전체적으로 산을 받아 본 후 어떠한 사람들이 좋지 않다는 점괘가 나오면, 잠수회장은 특별히 대상으로 지목된 잠수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중에 액막이를 할 준비를 하게 한다. 보통은 ○세, ○세 하는 식으로 어느 나이의 사람이 좋지 않다고 심방이 말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자들은 굿이 끝나기를 기다려 심방에게 부탁해 따로 액막이를 하고 산을 받아보는 것이다. 심방은 개인별로 어떠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알려준다.

2) 해산물의 풍요

(1) 요왕세경본풀이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물의 발뿐만 아니라 바다발이라 하여 바다에까지 농사의 개념을 연장시켰다. 땅에 발이 있는 만큼 바닷가나 바닷물 속에도 발은 있어, 미역이 많이 자라는 곳을 두고 ‘메역밭’이라고 하거나 자리돔이 많이 잡히는 곳을 ‘자리밭’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의 발들이 어느 한 사람 뒤통의 일터라면 바닷가나 바다 속에 있는 바다발들은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바닷가 마을 사람들 공동의 발이며, 이런 발들에는 이름이 있게 마련이다.⁸⁾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해안마을이면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다발에 풍요를 주는 신이 어떤 신인가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동김녕 잠수굿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원대상이 용왕이다. 잠수굿과 관계있는 김녕 성세깃당의 당신도 ‘요왕황제국 말жат아들’이다. 따라서 바다발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 용왕에 속해 있는 ‘요왕세경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다.

8)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3쪽.

우리는 바다밭에 있는 요왕세경신과 관련 있다. 세경신을 청해서 기도한다. 요왕 세경신은 요왕에 소속된 팀이다. 요왕과 요왕세경신이 해산물을 준다.(문순실 심방 인터뷰 내용)

잠수들은 바다에 용왕이 있고, 바로 이 용왕이 해산물의 풍요를 주는 것이며 더불어 바다밭에서의 무사안전까지도 보장한다고 한다. 즉 잠수들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원래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로서 일반신본풀이에 해당한다. 동김녕에서는 이런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거기에다 본풀이 전후로 용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삽입함으로써 요왕세경본풀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용준도 동김녕마을에서 미역, 전복, 소라 등이 번식하는 것도 바다의 농사로 보아 바다에도 농신인 세경이 있다는 관념으로 세경본풀이를 한다고 보았다.⁹⁾

(2)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요왕신과 요왕세경신 등의 신들이 내리는 길을 치워 맞이들이고 그 신을 잘 대접하여 보내는 의미이기에,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깃들여 있다. 앞서 해상무사고를 기원하는 의미는 물론이고 요왕과 요왕세경신이 바다밭을 잘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3) 씨드림, 씨점

해산물의 풍요와 관련해 잠수곳의 후반부에 씨드림과 씨점이라는 제차가 있는데 풍요를 바라는 잠수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동김녕에서는 씨드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잠수 2명이 선정되는데, 그들은 좁쌀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심방의 서우젯소리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다같이 춤춘 후에는 심방은 대양(巫樂器)을 들고 잠수 2인은 바구니를 든 채로 밖으로 달려 나가며 바닷가 모든 부분에 좁쌀을 뿌린다. 이때 일정한 양이 일정한 지역에 골고

9) 현용준, 「濟州의 漁民信仰」,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166쪽.

루 뿌려질 수 있도록 다들 신경을 쓴다.

이렇게 바닷가를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잠수가 남아 있는 좁씨를 가지고 돛자리 위에 뿌리면 심방이 점을 친다. 돛자리는 씨점을 하는 그 순간 심방과 잠수들의 눈에는 동감녕의 바다로 바뀌게 된다.

심방은 좁씨의 밀집도나 퍼진 범위를 살펴보면서 바다밭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해산물들이 길하고 흥한지를 예상한다. 씨점에 집중하는 잠수들은 심방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마음속으로 바다밭을 어렵짐작하게 된다. 씨점을 통해 심방이 이야기하는 바다밭의 상태는 잠수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씨드림과 씨점은 일종의 유감주술적인 행위¹⁰⁾라고 할 수 있다.

잘 들읍서 예. 우미는 지금 바당에 골고루 씨 뿌려졌수다. 우미는 골고루 해신디 지금 먼 바당에 예. 물건 어신 바당이 어디냐 허른 한여 양. 한여광 석은빌레 사이 예. 그디 비웠고 예. 또 가수 알여 예. 가수 아래 물가는 바다 물가는 바당은 예. 흥끔 조심험씨. 그 바당은 가문 흥꼴 냈나 예. ... 이 저 구쟁이씨들은 흥끔 부족허우다. 오분제기씨도 쪼끔 부족허는디 예. 오분제기는 예. 어디가 많으냐 하면은 이제 사 이 앞바당에 어디 여에 지금 오분제기 붙어먹는디 요 앞바당에 양. 건디 예. 올해는 막 한 바당은 양. 한 바당에꺼는 지금 바당이 무신 그물을 낚 한 바당에꺼 잡아 붙신가(잠수들이 서로 소란스럽게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함) 거난 예. 먼바당에 물건은 이신디 자꾸자꾸 해녀들이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먹어부는 거라마씨. ... 바당이 지금 예. 흥년이라 흥년 바당이 흥년. 겐디 갯바위가 예. 지금 우미씨가 예. 어디를 막론하고 골고루 우미씨는. ... 톨씨도 비웠덴 해여도 지금이야 예. 조금씩 조금씩 전에 어신 풀들이 막 갯바위로 비지작하게 나뎠 예. 올해는 흥끔 바당은 흥년들

10) 현용준은 요왕맛이가 영신의례(迎神儀禮)이면서 기원유화의례(祈願宥和儀禮)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씨드림·씨점은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것으로 규정했다. 즉 씨드림·씨점은 기원유화의례 내부에 있는 유감주술행위인 것이다. 조를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로 보고 그것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농경의례적 요소가 모태가 되어 그것이 어로의례에 적용된 것이겠지만, ‘類似는 類似를 낳는다’는 유감주술의 원리가 작용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의례 속에서 행해진 사항이 실제의 생활에 실현될 것을 기대하여 행하는 의례가 유감주술의례이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349~361 쪽

쿠다 솔직히 말해서. 그자 바당에서 망사리 골르고 대나 그자 무사고만 헤여그네
("아이고 맞아 맞아"하고 잠수들이 맞장구를 친다) 올해 못 벌면 내년 벌고 이 물찌
에 못 벌면 다음 물찌에 망사리 7득으는 거고 그치록만 생각험서(2003년 동감녕 잠
수굿, 씨점 중에서, 문순실 심방)

3) 공동체의 유대강화

(1) 제물의 공동준비

잠수굿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잠수회가 다같이 협동해서 일을 처리
하고, 서로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굿하기 전날에 대부분 모여
제물마련을 위한 뱃물질을 하는데, 2004년에는 총 104명의 잠수들 중에 70여
명이 참여해 강한 협동심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는 어촌계장과 잠수회장이 중
심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잠수굿에 공동으로 제물을 마련하는 모습은 김녕 큰당(본향당)의 본향당제
와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큰당은 70년대 이후로 예전의
큰굿에서 '얹은제'로 변화하면서 개별 의례화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향당제
에 찾아오는 단골들은 다 저마다 개인별로 제물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당에 찾아와 제물을 진설할 때도 다 저마다 개인별로 제단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잠수굿에서는 아직도
공동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의
행사라는 사실을 잠수들에게 주지시키고 서로 연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잠수굿의 구체적인 전승과정과 관련한 사
항이 드러난다. 잠수들은 굿의 제물준비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
다. 왜냐하면 만드는 방법과 절차에다가 구체적인 제물의 형태나 개수를 알아
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숙련된 경험과 특별한 정성이 요구되는 일로 여
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굿당에 진설될 제물준비는 선정된 선배잠수와 대표
잠수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책임을 맡은 대표 잠수들이 굿에 쓰일 여러 가
지 물건을 마련해 오면 선배잠수들은 굿하기 전날 필요한 제물을 직접 만들며,

서로 자문을 얻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잠수굿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굿을 맡은 문순실 심방이 그 어머니로부터 굿을 이어 받듯이, 잠수라는 단골들 또한 굿을 나름대로 세대를 넘어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잠수들은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음으로써 굿을 하는 동안 선배잠수들에게 굿의 준비나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그런데 잠수회의 대표직은 마을의 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맡게 되기 때문에 잠수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굿의 준비나 진행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잠수굿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지·전승의 노하우가 전승되고 있다.

(2) 분부사뵐

분부사뵐은 오전의 초감제와 오후의 요왕맞이 때에 모두 행해진다. 분부사뵐을 할 때는 어촌계장과 잠수회장과 일부의 잠수들이 모여 앉아 심방이 자신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심방은 한 손에 눈물수건을 잡고 말을 하고, 잠수들도 때때로 눈물을 훔치며 경청한다.

분부사뵐의 내용은 여러 가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때와 장소에 따라 조심하라거나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감수하는 잠수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분부사뵐의 중요한 사항으로 잠수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화합하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촌계장과 잠수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지내야만 소원성취하고 아무 탈 없을 거라는 내용은 분부사뵐의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의해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 분부사뵐은 신의 뜻을 전한다는 형식을 빌어서 강력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잠수들은 거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공동체의 유대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 혼술(어촌계장을 말함: 조사자 주)아, 원 다섯술(잠수회장을 말함: 조사자 주)

아, 고맙다. 조상들이 저상반 이싱반 문을 잘 열려 상을 잘 받아 사노래 분무문안입고 ... 올해 열두 달 우리 물에나 바당물질 허는 즈순이랑 멍심허라 다 막아줍서 집이서 조왕에서 아침밥 해영 먹영 물질허래 나올 때 아픈 즈순이랑 그날 물질을 허지 말랜 해영구나(아이고 다 막아줍서). ... 아이고 나 즈순들아 사는 날까진 배운 기술이난 해여사 될 일이고(다 막아줍서) 사는 날까지 물질허민 목숨은 이 바당에 띄와 놓아근 아이구 선왕님 배당 나갈 땐 배에 의지허주만은 이녀만씩 떨어지민 태와 하나 의지허여근(다 막아줍서) 숨이 꼬옥꼬옥 허민 진 한숨으로 태와 의지 하나 해여 사는 나 즈순들 돈은 벌민 얼마나 벌고 재산은 벌민 얼마나 벌리리야. 죽는 날까지 고생을 허여사 될 일이고 물질하는 날까지 이일 해여사 될 일이란 나 즈순들아 ... 니네 즈름 좇아근 쉼 다섯술아 작년 훈 해 백명 넘는 지쌍 요왕더래 디리칠 적마다 아이고 우리도 조상님이 어디서 모르느니 니 혼자 드리치는 지를 받아근 나 즈순 공히 주는 썰을 그냥 먹영가리 해연 나 즈순들아 므른받디서 닌 니여 난 니여 싸워도 바당에서 조상을 도와준줄 니 공들인 덕으로 도왔구나. 올 훈 해도 도와주크메 걱정허지 말라(다 막아줍서). ... 해상영업 편안시켜주마 나 즈순들아(다 막아줍서). 쉼 훈 술아 올헨 운이 좋으난 니가 해녀들 잘 데령 허라 조상에서 도와주곡(다 막아줍서) 옛날도 집이 망허젠 허민 불턱을 두 받디 앉썸가민 벌써 집안 망해가는 거 돈은 무신 필요이시고 재산은 무신 필요이십네까. 백명 넘는 해녀들 불턱에 올 때 웃음 웃영오곡 올라갈 때 곱이 지쳐도 웃음 웃영 올라가사 허주 나 즈순들아 닌 니여 난 니여 등을 지지 말라 등을 지지 말라. 아이고 너 훈 곱이 지어가민 니네들 조들아진다. ... 하다 등을 지지 말아근 니가 잘헌 일이 이시나 나가 잘헌 일이 이시나 훈 발자국만 뉘우치라. 죽어불민 땅 속가민 무각무각 씹어볼 몸전이여. 아이고 이 사람 아니보젠 독허게 돌아삿당이라도 뒗날 봐지민 말 7라지고 얼굴 보아진다. 나 즈순들아 불턱에 아지는데 불턱을 훈받더래 모디칩서. 이 웃어른덜 이시난 옛날 영혼들도 오란 한숨을 쉬명 옛날 동서김녕 해녀들도 영해당 모두쳐신디 아이고 유래이신 일이여 어평헨 영 불턱에 두받디 앉썸근 나 즈순들아 영 간장들 씹엄시니. 나 즈순들아 깊이 깊이 깨우치라 깊이 깊이 이행허라. ... 나 즈순들도 너무나 고퍃운 즈순들이여 썰 훈되도 정성이여 밥 훈직도 정성이여 돌래떡 사발시루 하나도 정성이로구나. 니네덜 우으로 넘는 일 이 어린 것들 송보젠 말앙 불턱에 앉는 날까지

삼춘네전 나 조캐야 홀목심영 해염시라 허민 조상에서 물숨 먹을 일을 견어주마 견어주마 해연 분부문안 입고. 쉼 쉼 살아 쉼 쉼 살아 오늘로 조상님들안티 다 고맙수텐 허라 고맙수텐 허라. ... 돌아상 반성허는 나 즈순들아 백명 넘는 즈순 거늘와 주마 거늘와 주마. 나 즈순들아 불턱을 모디치라 모디치라 모디치라 후회될 일 이신다 후회될 일 이신다. ... 나 즈순들아 우리 조상들도 니네안티 먹영가는 거 너무 미안 허다 미안허다. 니네들 편안허영 망사리 ㄱ득 양식장에도 망사리 ㄱ득행 돈 하영 탕 웃음 웃어사 우리도 아이고 영 허난 나 즈순들 일년 영도 큰곳허염구나 해영 우리도 지꺼정 춤추명 오랑 먹영 갈 거난(다 막아줍세) 나 즈순들아 불턱을 모디치라 모디치라(2003년 동김녕 잠수굿, 요왕맞이의 분부사뵈 중에서, 문순실 심방)

(3) 서우젓소리¹¹⁾

서우젓소리는 곳에서 자주 불리는 노래로 대부분 가사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다. 그런데 가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붙일 때라도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잠수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물질에 대한 애환과 살림살이의 고단함, 가정생활의 희노애락 등이 주로 표현되므로 서로의 삶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우젓소리는 ‘매기는 소리(선창)’와 ‘받는 소리(후창, 후렴)’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라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서우젓소리의 특성은 다같이 놀 수 있는 대동판을 형성하기에는 아주 제격이다. 거기다가 춤까지 곁들여지므로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4) 지드림

앞서 해상무사고 부분에서 언급한 지드림과 같은 것으로, 다만 이 경우는 잠수회와 마을 전체를 위해서 도지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11) 서우젓소리에 대해서는 변성구, 「제주도 서우젓소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6 참고.

(5) 도액막음과 도산받음

도액막음과 도산받음도 개인적인 액막음이나 산받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범위를 넓혀 잠수회와 마을 전체를 위해 하는 것이다.

(6) 참가자의 범위와 부조, 답례

잠수굿을 할 때 마을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이 각각 부조를 하는데, 그 부조하는 이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잠수굿을 이미 하나의 마을의례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물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마을사람들도 부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일례로 장사나 사업하는 주민들도 잠수굿에 참여해서 기원하면 혹시 번창하거나 액을 막을까 싶어서 부조를 하고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물론 김녕마을 내에서도 잠수굿에 참가하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제와 더불어 가장 큰 행사라고 말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자의 범위와 부조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조는 결과적으로 잠수굿을 운영·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경제적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잠수굿의 전승에 일정 정도 기여한다. 따라서 잠수들도 부조에 대한 답례로 해산물(소라)을 각각 나눠주고 신경 써 준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 또 부조하는 이들은 그 이름이 제장에 걸려 열명의 대상이 된다.

3. 잠수의 의례형태와 잠수굿의 의미

현재 제주도에서 잠수들과 관련해 행해지는 무속의례에는 잠수굿 이외에도 영등굿이 있다. 영등굿은 아직도 제주도의 많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잠수와 어부의 해상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주도의 잠수굿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등굿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짚어보아야 한다. 과연 잠수굿과 영등굿은 무엇이 같고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곳이 가지는 정확한 개념과 위치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然燈’과 관련해서 이 글의 연구대상지인 ‘金寧’이라는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토는 잠수들의 의례형태와 잠수곳의 실제적인 의미를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1) 영등곳의 의미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와 있다.

2월 초하루에 귀덕 김녕 등지에서는 장대 12 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떼 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약마희(躍馬戲)를 해서 신을 즐겁게 했다. 보름이 되어 끝내니 이를 연등(然燈)이라 한다. 이달에는 승선을 금한다.¹²⁾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然燈’과 관계된 의례는 귀덕 등지의 북서부 지역과 김녕 등지의 북동부 지역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을 두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진행한 현용준은 ‘然燈’이 곧 제주도 음력 2월의 풍속을 말하는 ‘영등’이라는 분석을 하였다.¹³⁾

일단 제주도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영등에 관련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영등신은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배기섬에서 제주도로 내방하는 외래신이며, 시기는 주로 음력 2월 1일에 들어와서 2월 15일에 다시 나간다고 전한다. 영등신은 주로 영등할망으로 관념되고 있으나, 영등하르방이라고 표현된 전승형태도 있다. 아무튼 이 영등신이 오는 시기에는 바다

12) 又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 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然燈 是月禁乘船(『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 濟州牧 風俗條).

13)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곳」,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참고. 이 논문은 1969년 『韓國民俗學』 창간호(韓國民俗學研究會)에 실린 것을 다시 수록한 것이다.

의 소라나 고동 등이 텅 비어 있으며 도민들은 빨래도 하지 않고 배도 띄우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영등신은 기본적으로 풍산(風神)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등신이 들어왔다 나가는 기간의 날씨 여하에 따라서 딸이나 며느리를 대동하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승되며 한 해의 풍흉을 예상하기도 한다. 영등신은 해녀가 채취하는 바다의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주는 신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어업과 농업을 포함한 생업 전반에 걸쳐 풍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영등신앙은 비단 제주도에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육지부에도 영등과 관련한 민간신앙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홍석모의 『東國歲時記』에 이미 2월 풍속으로 영등이 거론되었다.

영남 지방의 풍속에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영등신이라 한다. 그 신이 무당에게 내리면 그 무당은 동네로 나돌아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투어 맞이하다가 즐긴다. 이 달 초하루부터 사람을 꺼려 만나지 않는데 15일 혹은 20일까지 간다.¹⁴⁾

이능화는 『朝鮮巫俗考』에서 영호(嶺湖)지방 일대의 영등신(靈童神)에 대해 조선 정종(正宗)대의 실록과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 홍석모의 『동국세기(東國歲時記)』, 윤정기(尹廷琦)의 『동환록(東輿錄)』, 체제공(蔡濟恭)의 『번암집(樊巖集)』등을 인용하며 언급하고 있다.¹⁵⁾

한편 송석하도 「風神考」에서 영등신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즉 영등신은 영동할만네·영동할맘·영동할마니·영동할마시·할마시·영동바람·風神할만네·영동麻姑할마니 등으로 불리는 신이다. 신앙형태상으로 생산에 관련된 農漁荒神이며 ‘可分性 有毒 妖氣 集成體’라고 할 수 있다. 또 특수한 것은 一洞里라든가 一郡이라는 대집단의 所崇 대상인 共同 致誠神이 아니고

14) 嶺南俗 家家祭神 名曰靈登神 降于巫 出遊村間 人爭迎而樂之 自是月朔日 忌人物 不接之 至十五日或二十日. 洪錫謨 著·이석호 譯註, 『東國歲時記』, 『朝鮮歲時記』, 동문선, 1991, 68~69 쪽

15) 이능화 著·이재곤 譯, 『朝鮮巫俗考』, 동문선, 2002, 284~287 쪽.

一戶 所崇神인 가장 利己的인 신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글에서 물대[水竿]를 세우는 立竿民俗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¹⁶⁾ 그리고 영등신앙은 중부 이남의 동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¹⁷⁾

그런데 이렇게 육지부에 영등관련 신앙이 있다는 점은, 제주도의 영등굿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산물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육지와의 문화적 관련 속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 물론 육지부의 영등신앙과 제주도의 영등신앙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육지부의 개인 所崇神이라는 성격에 비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마을 공동제라는 집단의 숭배대상으로 나타나며, 게다가 직접적인 농업만이 아닌 어업과 해녀에 관련한 성격이 첨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¹⁸⁾

하지만 영등신앙이 중부 이남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제주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육지부의 영등신앙과 그 본질적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풍요를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성격은 공유하면서, 다만 영등신에 대한 의례를 행하는 규모나 방법 등에 있어서 육지부와 제주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제주도와 육지부의 영등신앙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이제 제주도의 영등굿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주도 영등굿은 바로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굿을 말한다. 보통 영등굿은 2월 1일 영등이 들어올 때 하는 영등환영제와 보름 후 영등신이 나갈 때에 맞춰서 하는 영등송별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영등환영제에 비해서 영등송별제를 더 비중 있게 치르는 편이다. 현용준은 제주도 각 지역에서 치러지는 영등굿을 조사 보고한 바 있는데, 이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도 전체의 각 지역에서 골고루 행해지고 있는 형편임을 알 수 있다.¹⁹⁾ 주로 해안마을이 더욱 많지만 중산간 일대에서도 간간히 행

16) 송석하, 「風神考」, 『韓國民俗考』, 일신사, 1963 참고.

17)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11>,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104쪽. 지도 4-1(영등(風神祭)의 분포) 참고

18) 장주근, 「강인한 삶의 현장, 풍요에의 기원」,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83, 96쪽,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74쪽 참고.

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영등곳에 대해서 해녀채취물의 증식
제로서의 성격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업일반, 농업, 바람의 피해 방지,
도의 출타인의 안녕 등의 효능에까지 확대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²⁰⁾

현용준의 조사는 1960년대의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도 각
지역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도 대다수
가 전승되고 있는 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해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을
듯하다.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에서 관심 있게 지금도 영등신을 위한 의례는
행해지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영등곳의 세부진행
도 각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조사되었고, 그 제차나 기본적인 사항 역
시 잠수곳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일례로 기존에 조사 보고된 영등곳의 제
차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천읍 북촌리 영등곳〉²¹⁾

① 삼천벵맷대 세움

② 초감제

배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연유담음-군문열림-예명올림-비넘-다음 제
차로 넘김

③ 요왕맞이

배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연유담음-군문열림-요왕질침-비넘-요왕문
열림-나까도전침-삼천군벵 질침

④ 씨드림-씨점-서우젓소리-도산받아 분부사름-지아름

⑤ 지손들 산받음-지손들 액막음-도액막음

⑥ 배방선

19)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곳」,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6쪽 표 참고.

20) 현용준, 위의 논문, 74쪽

21) 현용준, 위의 논문, 67~68쪽. 이 논문에서는 조천읍 북촌리의 영등곳을 주대상으로 하였
다. 현재와 시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등곳의 제차를 살피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은 다른 곳의 영등굿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마을마다 각각 처한 사정이나 자신들만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제주도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틀에서 동김녕 잠수굿과도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동김녕은 영등달에 하지 않아 영등굿이 아님에도 둘 사이의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초감제와 요왕맞이, 씨드림, 지드림, 액막음, 배방선 등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2)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 중 ‘金寧’과 관련한 검토

앞서 인용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는 영등신을 위한 의례를 김녕 등지에서도 했다고 적고 있다. 옛 기록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옛 기록이 개인적인 의례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전도적인 민간적 풍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는 김녕에서도 영등달에 영등굿을 했다는 말인지 고민스럽다. 지금의 형태로 보아서는 김녕에서 영등굿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김녕에 영등신을 위한 의례를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으니 혼란스러운 것이다.

현재까지 동김녕의 잠수굿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모아 보면, 동김녕의 잠수굿은 영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제일도 음력 3 월이어서 영등달과도 관계가 없다. 따라서 현재 동김녕에서는 영등달에 잠수 개개인이 실제 어떻게 하는 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잠수들의 공식적인 의례와 관련해서는 영등과 관련한 잠수굿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김녕의 잠수들은 영등달에 어떠한 의례도 하지 않는다. 보통 제주 풍속상으로 영등달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긴 하지만, 다른 마을이 마을제로서의 영등굿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에 비한다면, 동김녕에서는 성세깃당을 포함해 삼분향이라고 불리는 각 당들의 제일에도 영등제는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개인별로도 특별한 의례를 예나 지금이나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순실 심방의 이야기로는 약 30년 전만 해도 배하는 사람들이 영등배

인 짚배를 만들어서 띄웠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배하는 사람들만 하고 해녀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오래 전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 짚배 띄울 때도 심방 불러다가 크게 하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정성 드려서 제물 좀 차리고 간단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살펴보자. 우선 현재 김녕에서 옛 영등곶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현재로부터 거의 500년 전의 옛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김녕에도 같은 의례가 있었을 수 있다. 당시 영등곶의 분포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보면 김녕 지역도 그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8~19세기 당시 제주의 고지도에 보면 김녕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인 속칭 ‘영등물’이 ‘연등포(延登浦)’ 등으로 표기²²⁾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명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옛 기록의 ‘金寧’이 현재의 김녕리가 맞다면 이는 김녕리 입구의 속칭 ‘영등물’ 지역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현재에는 영등곶 관련 의례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아마 시대가 흐르면서 김녕에서는 영등곶이 점점 사라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본다.

3) 잠수곶의 의미

제주도 내의 해촌마을에서 아직도 잠수들이 물질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크고 작은 형태의 잠수들을 위한 곶이 열린다. 이런 곶은 마을

22)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 濟州 『湖南全圖』, 濟州 『全羅南北道輿地圖』, 濟州 『八道地圖 <湖南防輿編>』, 濟州地圖 濟州 旌義 大靜 『海東輿地圖』 등 제주관련 고지도에는 현재 김녕리 입구 ‘영등물’ 지역이 연등포(延登浦), 영등포(迎登浦)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濟州의 옛 地圖』, 1996 참고. 한편 영등포(迎登浦)에 대해서 고광민, 『제주도 포구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62~64쪽 참고.

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중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음력 2월인 영등달에 영등굿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영등굿이 거의 잠수굿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동감녕마을의 경우처럼 영등신이 오고 가는 기간에 잠수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기를 택해 잠수굿을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흥리나 신양리의 경우²³⁾도 마찬가지다. 영등달에 하는 것에 비하면 그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어쨌든 영등달에 하지 않는 경우도 몇몇 있다. 이런 사례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변화된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잠수굿의 모습이 다 영등굿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잠수굿을 진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비록 영등굿이나 잠수굿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도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거의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영등굿과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잠수굿이 가지는 특성이나 변별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영등굿과 잠수굿에 대해 정확한 구분을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둘 다 잠수들을 중심으로 어업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의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등달에 벌어지면 영등굿이고, 영등달이 아닌 달에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잠수굿이라고 불려왔다. 즉 영등굿이 곧 실질적으로 잠수굿이요, 잠수굿은 곧 영등굿의 변형이거

23) 정월에 잠수굿을 하는 경우로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를 들 수 있다. 신흥리 잠수굿은 정월의 포제일시와 같다. 즉 마을에서 포제일시를 택하면 잠수굿도 그날 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포제를 지낸 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다. 2005년에는 2월 20일(음력 1월 12일)에 어촌계 창고에서 지냈다. 또한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에서는 음력 2월 1일에 영등이 나가고 난 후 음력 3월이 되기 전에 택일하여 잠수굿을 하고 있다. 신양리 잠수들은 영등이 나갔으니 영등굿이 아니라 잠수굿이라고 생각한다. 성산읍 신양리 잠수굿은 2005년 3월 30~31일(음력 2월 21~22일)에 어촌계 해녀탈의장에서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는 짝수해에만 격년제로 굿을 하고 있다. 가파리 잠수굿은 지난 2004년 3월 8~10일(음력 2월 18~20일)까지 3일 동안 어촌계 해녀탈의장에서 벌어졌다

나 아류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이는 둘의 성격이나 내용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영등굿이 대개의 경우 잠수(선주 등 어업종사자 포함)들을 위한 의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거꾸로 잠수굿은 영등굿의 변형이나 아류로만 보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 즉 잠수들을 위한 굿은 영등달에 영등신을 맞이해 치르는 의례일 수도 있고, 영등굿과는 별개로 치러지기도 한다는 말이다. 물론 잠수의 물질작업에는 정신적으로 용왕이나 영등신이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둘 사이에 비슷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영등굿과 잠수굿 사이의 변별성은 없는 것일까? 영등굿과 잠수굿은 한편으로는 여러 면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다밭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문제도 영등굿과 잠수굿을 구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잠수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주요 대상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 굿에서 그 신을 위한 세부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등굿에서는 당연히 영등신이 바다밭의 풍요를 관장한다. 그런데 굿에서 모셔지는 신들을 살펴보면 비단 영등신 만이 아니라 용왕과 선왕(船王)이나 본향당신도 같이 청해질 뿐만 아니라 이들도 해상안전과 바다밭 풍요에 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영등굿에서는 모셔지는 대상신이 여러 종류이고, 각각의 신들을 위한 제차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잠수굿에서는 용왕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생각한다. 물론 동김녕마을도 본향신을 청해 들이기도 하고, 굿의 끝부분에 선왕을 위한 소제차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등굿보다는 용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며, 용왕이 바다밭의 풍요와 더불어 해상안전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잠수굿에서 용왕과 관련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자. 앞서 동김녕의 잠수굿에 <요왕세경본풀이>가 있다고 밝혔다. “요왕세경신은 요왕에 소속된 팀”이라는 문순실 심방의 표현처럼 요왕에도 여러 신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잠수들은 생각한다. 즉 용왕신에도 방위관념이 있어서 ‘동해청요왕(東海靑龍王)’, ‘서해백요왕(西海白龍王)’, ‘남해적요왕(南海赤龍王)’, ‘북해흑요왕(北海黑龍

王), ‘중앙황요왕(中央黃龍王)’의 다섯 용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요왕 휘하에 여러 관리가 속해 있고, ‘요왕부원국 삼채스 거복스제’ 등 사자(使者)인 차사도 딸려 있다.²⁴⁾

또한 신앙리 잠수굿에서는 <용올림굿>이라는 특별한 제차를 볼 수 있다. 이는 잠수들이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신앙리 잠수들은 바다의 풍요를 주고 자신들의 해상무사고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용왕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인심방이 천으로 용의 가면을 만들어 쓰고 몸체를 길게 만든 모습을 한 후 감상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 용왕을 불러온다. 그런 후 바닷물이 빠진 모래사장 위에 엎드려 낮은 포복으로 기어 오며 용왕이 바다에서 나와 잠수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재현한다. 이 때 잠수회장은 치마폭을 벌려 그 위에 많은 인정(돈)을 걸고 대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잠수들이 쭉 둘러서 있게 된다. 한편 용왕의 입에는 여의주가 물려 있다. 여의주는 천문 2개와 상잔 2개로 형상화하며, 모래사장을 다 기어와 대기하고 있던 잠수회장에게 내뱉어 그 해의 운수를 점친다. 점괘에는 모두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노적’의 점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용올림굿>이라는 제차는 잠수들의 기원대상, 기원내용 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제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등굿과 잠수굿의 변별성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영등신을 위한 의례는 제주도의 해촌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에서도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일례로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 신당의 원조라는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의 송당본향당에도 영등제일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영등굿은 원래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 등 전체적인 생업과 관련한 실상 그 범위가 넓은 제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영등굿이 주로 본향당 등을 비롯한 당의 제일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살펴봐도 그렇다.²⁵⁾ 당의 영등제일에는 잠수들을 비롯한 어업관련자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 모두가 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당과 관련된 영등굿은 찾아가는 단골들을 보더라도

24) 현용준, 「濟州의 漁民信仰」,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151~152쪽

25) 제주시 칠머리당의 영등굿,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본향당의 영등굿, 하도리 각시당의 영등굿, 남제주군 성산읍 신앙리 본향당의 영등굿 등은 모두 당의 제일과 관련이 있다.

물질 만이 아닌 전체 생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영등굿의 성격에 대비해서 잠수굿을 살펴본다면, 잠수굿은 특정지역(해촌)에서 특정집단(잠수)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련집단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전문적인 영역(물질)을 관장하는 곳이라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잠수들은 평상시 마을 주민으로서도 다른 신앙행위에 참가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위험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의례를 만들어내고 오랫동안 전승시켜 왔기 때문이다.

물론 동김녕 잠수굿의 경우 김녕 성세깃당의 당제일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김녕 마을 내 삼본향(三本鄕)의 당제일에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비해, 잠수굿과 관련 있는 성세깃당의 3월 제일에는 주로 잠수들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앙리는 영등신이 나간다는 음력 2월 15일에 신앙리 본향당에서 영등굿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해 음력 2월 15일 이후에서 음력 3월 이전의 시기 중에 적당한 날을 택일해 잠수굿을 별도로 치르고 있다. 매인 심방인 양정순 씨(73세)나 잠수들은 음력 2월 15일을 기준으로 영등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후에 하는 굿은 영등굿이 아닌 잠수굿이며 잠수들을 위한 굿으로 여긴다.

신양리에서 잠수굿 직전에 본향당에서 영등굿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잠수굿을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잠수들은 본향당의 영등굿에는 마을 사람들이면 모두 가는 것으로 자신들도 참가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목숨 걸고 물질하는 자신들을 위한 굿을 따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영등이 나가고 난 후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바빠지는 음력 3월 이전에 잠수굿을 했던 것이다.

한편 해촌 지역에서는 그물고사, 연신 등 각각의 크고 작은 의례가 다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행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해도 그렇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동김녕의 경우에도 그물고사 등 어업관련 의례들은 주체들에 따라서 다 따로 행해졌다.

그래서 만약 가정을 한번 해 본다면, 생업(농·어업 포함)풍요라는 영등굿의 형태와 해촌마을 잠수들을 위한 잠수굿의 형태가 각각 존재하다가 시대의 변

화에 따라 점점 그 역할이나 기능이 사라지거나 좁혀져서 오늘날에는 영등굿이 내용상으로 잠수굿화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시절에는 전도적으로 행해졌다가 현재에는 영등굿이 주로 해촌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등굿과 잠수굿의 관계를 잘 고찰할 수 있다면, 동김녕 등의 사례가 영등굿과는 별개로 지난날의 전통적인 잠수굿의 흔적이 남은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주로 원래 영등굿의 형태로 잠수관련 의례를 치르는 제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동김녕 등의 사례가 특수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리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이 글은 제주도 잠수굿 연구를 위해 주로 동김녕마을에서 행해지는 잠수굿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무속의례인 잠수굿과 단골인 잠수회 매킨심방이라는 삼각축이 온전히 살아 있는 동김녕의 잠수굿은 제주도 잠수굿을 이해하는데에 실마리를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동김녕 잠수굿을 중심으로 해서 잠수굿의 제차구성, 제차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주도 잠수굿의 전체적이고 본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유사한 작용을 하고 있는 영등굿의 경우를 보조적으로 검토했다.

따라서 동김녕 잠수굿을 대상으로 해서 살펴본 잠수굿의 제차 구성은 크게 초감제, 요왕맞이, 지드림, 씨드림-씨점, 액막이, 배방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제차들의 의미와 역할과 잠수굿을 전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해상무사고 기원과 해산물의 풍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이 있음을 밝혔다. 각각의 제차들은 서로 교차적으로 이 세 가지 역할과 연결되고 있었다. 또한 심방의 사설 등을 통해 잠수들의 기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잠수굿에서 실제 어느 제차의 어떤 부분이 잠수들과 공유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제차의 분류와 나열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잠수굿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김녕 잠수

곳의 내용과 다른 마을의 잠수곳의 내용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으므로, 동김녕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제차들의 3가지 역할은 다른 지역의 잠수곳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동김녕의 잠수곳을 중심으로 하고 영등곳의 경우를 부가적으로 살펴 논의한 결과, 제주도 잠수의 의례형태와 잠수곳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잠수곳이나 영등곳이나 기본적으로 기원하려는 내용과 실제 곳의 진행 등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러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영등곳은 제주도의 전반적인 지역에서 농업과 어업 등 생업 일반을 포함하는 풍농·풍어의례였던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해촌마을의 의례로 축소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해촌마을에 더욱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보았다. 반면에 잠수곳은 처음부터 해촌마을에서 잠수라는 특정한 생업집단을 위한 의례였다는 것이다.

결국 잠수곳은 해촌마을의 잠수들을 위한 의례로써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영등곳의 개념과는 다른 지점에 서 있다. 잠수곳이 영등곳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 둘 사이를 변별성이 없게 하나로 묶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잠수곳과 영등곳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치 못하지만, 이후에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문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시 한번 진지한 논의를 시도한다면 잠수곳의 면모를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잠수, 잠수곳, 해상무사고 기원, 해산물의 풍요, 공동체의 유대강화, 영등곳

■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고광민, 『제주도 포구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_____,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김수남 외,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83.

김영돈 외,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11>,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_____, 『제주도 당신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3.

박수양, 『김녕리 향토지』, 명성종합인쇄, 1986.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변성구, 『제주도 서우젓소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북제주군 구좌읍, 『구좌읍지』, 북제주군 구좌읍, 2000.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2002.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I,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송석하, 『風神考』, 『韓國民俗考』, 일신사, 1963.

이능화 著·이재곤 譯, 『조선무속고』 동문선, 2002.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정루시아, 『제주도 당신앙 연구 : 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9.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김녕리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6, 제주대학교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9.

제주도 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신일인쇄사, 1976.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濟州의 옛 地圖』, 1996.
- 제주사료탐독회,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 조성운·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조성운·하순애·이상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한림화·김수남,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한길사, 1987.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_____,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_____, 「제주도 어촌마을에 관한 연구 1」, 『논문집』 제2편, 제주대학교, 1970.
- _____,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Ⅱ)」, 『국문학보』 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0.
- _____,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洪錫謨 著·이석호 譯註, 「東國歲時記」, 『朝鮮歲時記』 동문선, 1991.



The ritual form and meaning in Jamsugut on Jeju Island

—A Case Study of the East Gymneoung Village—

Kang, So-Jeon(Cheju National University)

Quite a few cultures with regards to women-divers —called *Jamsu* in Jeju dialect— have passed down to the present. Of the cultures, women-divers' shamanism performance(*Jamsugut* in Korean, 잠수굿) is said a religious belief for women-divers themselves. The effort to perform *Jamsugut* and to preserve it can be said a religious act that has a great attachment.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understand the procedure of the *Jamsugut*, and to analyze the role of each step on *Jamsugut*. Also this paper is shown to understand the real meaning and the correct form of *Jamsugu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rough comparison with *Jamsugoot* and *Yeongdeunggut*(영등굿) that have similar function.

To achieve the aims, this paper looked at the *Jamsugut* exercised at the East Gymneoung village, which locates at Gujwa in North County of Jeju Island. The village was selected for the study because the original forms of *Jamsugut*, women-divers' organization, and a chief shaman have been maintained.

The procedure of *Jamsugut* are made up with various contents. Above all *chogamiye*(초감제) and *youwangmaji*(요왕맞이) are very important. Each procedure of *Jamsugut* has three roles. And these are represented over again through all the course of *Jamsugut*.

Namely, the *Jamsugut* represents wishes for no accident in sea, for catching a plenty of fishery products, and for solidarity of community.

Also we could know following truth about the ritual form and meaning in *Jamsugut*

on Jeju Island. Basically, *Jamsugut* and *Yeongdeunggut* almost similar. But, when examine several reference datas, *Yeongdeunggut* can speak that was done in general area of Jeju Island. And it is thing for plenty of agriculture and fishery etc. That is, it was ritual that serve plenty of inhabitants who have all occupations. So, age gradually passing, it has been shrunk by ritual of the seashore village or remain more in the seashore village than other area. On the other hand, from the first, *Jamsugut* was held in the seashore village, and was ritual for particular occupation group which is a woman-diver.

On today, even if form of *Jamsugut* and *Yeongdeunggut* looks similar, this two was starting in different concept fundamentally.

[Key Words] woman-diver, *Jamsugut*, wishes for no accident in sea, catching a plenty of fishery products, solidarity of community. *Yeongdeunggut*



투고일 : 2005년 11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1월 30일